

1. Asch 1955 동조의 고전 실험. 다수 의견이 개인 판단과 응답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설명할 때 사용.
2. Kunda 1990 동기화된 추론. 원하는 결론이 정보 해석을 이끄는 메커니즘을 회사 사례 해석에 연결.
3. Entman 1993 프레임 이론. 문제 규정과 책임 귀속, 해결 방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에 사용.
4. Pronin Gilovich Ross 2004 객관성 착각과 편향 맹점. 조직에서 객관화 주장만으로 합의가 담보되지 않는 이유를 보강.
5. Petty Cacioppo 1986 설득의 경로 모델. 논거 기반 판단과 표면 신호 기반 판단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
6. Salmon 1983 침묵의 나선 관련 정리 자료. 소수 의견의 침묵이 겉보기 다수를 강화하는 구조 설명에 사용.
7. Aranda 2024 사회 네트워크에서 침묵이 갖는 효과를 다룬 최근 연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침묵이 확산되는 경로를 보강.
8. Sunstein 2006 집단 토론과 집단 극화. 토론 구조가 결론을 한쪽으로 밀어낼 수 있음을 논의.
9. Pew Research Center 2021 온라인 괴롭힘 실태. 익명 공간에서 발화 비용이 커지는 현실적 배경을 제시.
10. EPRS 2015 선전과 허위정보의 기본 개념을 정책 문서 형태로 정리. 국가 수준 여론 형성 논의의 일반 근거.
11. Madison 1788 Federalist No. 51. 권력 집중의 위험과 견제 필요성을 논의. 국가 수준 해결 방안의 제도적 근거.
12. Ohagi 2024 생성형 AI 에이전트가 에코 챔버에서 양극화될 수 있음을 보이는 연구. AI 확산에 따른 증폭 가능성 근거.
13. Ge 2020 추천 시스템과 에코 챔버 이해. 가시성 편향과 다수 신호 형성 논의에 연결.
14. Stray 2021 탈극화를 고려한 추천 시스템 설계 논의. AI 기반 해결 방안의 설계 방향을 제시.